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세니온

## (1) 근로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혹은 조회해서 1월 31일까지 제출 바람.

- ①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회계(인사)팀에서 파악할 수 없으니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50만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참고로 소득금액은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등으로부터 관련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면 확인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3대만 표시되므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조부모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②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한 서류 제출(부양가족 제출분 포함)
  -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서류 제출방법은 별첨 자료 참고하고 국세청 자료는 1월 20일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한 1월 20일부터 조회하길 바람.
  - 부양가족 서류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동의부터 받고 자료를 조회하면 부양가족 제출분도 함께 제출할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 제출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참고로 소득요건을 충족(연령요건은 상관없고 의료비의 경우 소득요건도 상관없음)한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그리고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제출하길 바람.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③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 서류들은 직접 제출

구분	개별제출하여야 할 서류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신청성 이상아 및 미숙아 인지 여부</li> <li>• 요양병원 치료비-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li> <li>• <u>신용카드로 구입한 안경구입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자료가 출력되니 중복여부를 꼭 확인할 것</u></li> <li>• 보청구 구입비용,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의료기기 구입비용</li> <li>• 산후조리원 지출비용</li> </ul>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없는 어린이집 교육비</li> <li>•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없는 교복구입비용</li> <li>• 취학전아동의 교육비(미술학원, 태권도장, 피아노학원 등)</li> <li>• 국외교육비용</li> </ul>
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세계약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의 기준시가</li> </ul>

구분	개별제출하여야 할 서류
전세자금 대출과 취득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자금 대출관련 전세계약서</li> <li>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가능)</li> <li>주택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인 경우 세대주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25.7평 이하) 등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을 첨부하는 근로자 확인사항을 통해 자세히 알려주길 바람.</li> </ul>
벤처투자 (엔젤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자 등 소득공제 신고서</li> <li>출자 또는 투자확인서</li> </ul>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 영수증(종교단체 기부금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서와 소속증명서 포함)</li> </ul>
장애인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와 발달장애 아동은 병원에서 확인받은 장애인 증명서</li> </ul>

## (2)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관련 사항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다음의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참고로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서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 이하임)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지급자로부터 소득 지급 관련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인사·회계팀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① 배우자 : 법률혼만 가능, 12월 31일 이전 이혼자 제외

② 직계존속 : 1963. 12. 31 이전(만 60세) 출생자

③ 직계비속 : 2003. 1. 1 이후(만 20세) 출생자

④ 형제자매 : 만 60세 혹은 만 20세

⑤ 기타사항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능
- 배우자의 형제자매(시동생, 시누이, 처제, 처남)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능
- 장애인의 나이요건은 상관없이 소득금액만 충족하면 공제가능하므로 관련 장애인 증명서 제출바람. 참고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자료가 작년에 제출된 경우 별도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음. 다만, 발달장애아동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암·중풍·만성 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환자·인공호흡기 등의 중증환자인 경우에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사위나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이나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사위나 며느리도 장애인으로서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 이하) 이하이면 공제 가능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만 하고 만약 일시퇴거한 경우라면 증빙서류(요양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
-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은 2023.12.31이 판단기준일이지만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라면 사망일 전일(1월 1일 포함), 장애가 치유된 전일자로 판단함.
- 직계비속에는 입양자가 포함되며, 기초수급권자와 위탁아동도 공제가 가능함. 위탁아동은 2005.1.2.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으로서 6개월 이상 양육의 요건 충족해야 함.(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도 포함됨)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를,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아동확인서를 제출 해야 함.
- 일용직의 경우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함. 따라서 나이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단, 일용직근로자인지 혹은 일반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 공제시 주의를 요함.

### (3)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관련 사항

기본공제자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

- ①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만 70세(1953.12.31 이전 출생) 이상인 직계존속  
⇒ 1인당 100만원 공제
- ②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이 있는 경우  
⇒ 1인당 200만원 공제
- ③ 부녀자 추가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41,470,588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혹은 세대주인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의 소득유무는 고려하지 않아도 됨.  
⇒ 50만원 공제
- ④ 한부모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공제
- ⑥ 기타사항  
추가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소득공제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한부모소득공제만 적용함.

### (4) 물적공제 중 연금보험료 관련 사항

- ① 국민연금보험료(직장가입자분 외 지역가입자 분도 공제가 가능)
- ②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 (5) 특별소득공제

### 1) 보험료 공제

①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별도 제출할 자료 없음.

### 2) 주택자금 공제 ⇒ 연말정산서비스에서 서류 제출 가능

#### ① 주택마련저축 : 아래 유의사항 참조

㉠ 2023.12.31.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망. 유의할 점은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2024년 2월말까지(2023.12.31.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료 출력가능함) 제출되어야 함에 유의함. 참고로 작년도 이전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무주택을 유지하는 경우로서 무주택확인서가 작년도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실무상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연간 불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참고로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연도 중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하고 당첨의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도 중 해지가 된 경우라면 해지사유를 알려주길 바람.

####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망.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모두가 주택이어야 함에 유의해야하고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공제 가능

㉡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m<sup>2</sup>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 임차

⇒ 임대차전세계약서 제출 요망

㉢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경우 : 입주일(혹은 전입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서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이어야만 함. 단,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㉔ 전세 재계약 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 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 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대환한 경우 대환한 내용을 알려주길 바랍니다.
- ㉕ 금융기관 외에서 대출 받는 경우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입주일(혹은 전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면서 이자<sup>\*</sup>를 지급하는 경우. 단,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 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 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 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sup>\*</sup> 2010년도는 4.3%, 2011년도는 3.7%, 2012년도는 4.0%, 2013.2.23.이후 차입분은 3.4%, 2014.3.15.이 후 차입분은 2.9%, 2015.3.13.이후 차입분은 2.5%, 2016.3.16.이후 차입분은 1.8%, 2017.3.10.이후 1.6%, 2018.3.21.이후 차입분은 1.8%, 2019.3.20.이후 차입분은 2.1%, 2020.3.23.이후 차입분은 1.8%, 2021.3.16.이후 차입분은 1.2%, 2023.3.20.이후 2.9%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함.
- ㉖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21.1.1.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상환하는 분부터는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음.
-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첨부하는 근로자 확인사항 요건충족여부 확인요망
- 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sup>\*</sup>인 주 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연도말 1주택만 소유해야함에 유의
- <sup>\*</sup> 주택 취득의 경우 2018년까지 차입분은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이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로서 2021.2.16.까지 차입분은 4억원 이하, 2021.2.17.이후 차입분은 5억원 이하임.  
분양권의 경우 2020.12.31.까지 차입하는 분은 4억원 이하, 2021.1.1.이후 차입하는 분은 5억원 이하임.
- ㉒ 대출기간이 15년 이상(2003.12.31. 이전 차입분은 10년 이상, 2015년 차입분부터는 상환기 간이 10년 이상 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방식으로 차입하는 경우 포함)이고 등기일로 부터 3월 이내 차입해야 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만 함.
- ㉓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한 경우로서 해당 차입금이 상환기 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불가능.
- 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동 차입금을 다 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함.
- ㉕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에 관계 없이 그 차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함.
- <sup>\*</sup> 차입금 잔액을 일시상환하였는지의 여부, 대환하였는지의 여부를 알려주길 바랍니다.

- ㉞ 무주택 또는 1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21.1.1.이후 이자상환액을 상환하는 분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6) 물적공제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관련사항

- 1) 개인연금저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 제출
- 2) 벤처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직접 제출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연도를 알려주길 바라며 출자·투자확인서 발급 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
-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 제출
  - ① 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 지출분도 공제 가능(연령요건은 상관없음)
  - ② 형제·자매 지출분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해도 공제 불가능
  - ③ 의료비와 취학전아동을 위한 사설학원 교육비 지출액,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체육복 포함) 그리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의 경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4)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직접 제출

#### (7) 세액공제 관련사항

- 1) 연금계좌(퇴직연금과 연금저축)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 제출
- 2) 보험료 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 제출 가능
  - ① 보장성 보험만 공제 가능
  - ②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 보험료 지출분은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단,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납부자여야 함.
- 3) 의료비 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서류 제출 가능
  - 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분은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 단,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 지출액은 공제 불가능
  - ②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콘택트렌즈 포함)와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처방받은 의료기기의 구입·임차 비용 그리고 보청기 구입 등에 대한 서류는 연말정산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영수증 제출 바람.  
⇒ 신용카드로 구입한 안경구입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출력되고 있으므로 만약 개별 영수증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중복되는지 여부와 신용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자료가 출력되니 안경구입비 구입대상자를 구별하여 자료를 제공하기 바람.

- ③ 부양가족의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그리고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경우 근로자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의료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구분되어 제공되지 않으므로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그리고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에 해당된다면 직접 분류해서 알려줘야지만 의료비를 정확하게 공제받을 수 있음.

단,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해당하는 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래부터 전액 공제 대상자이므로 자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해당 자료를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함에 유의 바람.

- ④ 2019년 귀속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지출비용도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함(한도 200만원). 해당 자료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만 혹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길 바람.
- ⑤ 2023년도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2023년 이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는 경우 해당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자 스스로 2024년 5월에 해당 사업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에 유의 바라고 이 경우 가산세는 없음.
- ⑥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해당 안내문을 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알려주길 바람.

#### 4) 교육비 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서류 제출 가능

- 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분은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 가능
- ②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 지출분은 공제 불가능.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
- ③ 사설학원교육비는 취학전아동(2017.1.1.이후 출생자부터 가능함. 단, 2023년 3월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2016년 출생아동의 경우 2023년 1월과 2월분 공제가능함)에 한해서만 교육비 공제 가능
- ④ 장애인특수교육비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상관없이 공제 가능
- ⑤ 대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출하는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함) 원리금 상환액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
- ⑥ 장학금은 공제 불가능하고 회사지원 학자금은 근로소득 과세로 처리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고 비과세로 처리한 경우라면 공제 불가능
- ⑦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배우자쪽 포함)도 소득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⑧ 현장체험학습비와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은 본인만 공제 가능
- ⑨ 국외유학비의 경우 납입영수증 등의 서류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이 입학허가를 받지 않고 가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함.



- ⑩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 또는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수학여행비, 기숙사비, 실기실습비, 논문심사료, 어학연수비와 수시모집에 따른 대학교 등록금 선납금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기부금 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제출

- ① 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연령요건 상관없음)
- ②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③ 기부금 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제출 할 것
- ④ 종교단체기부금은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문화체육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와 해당 개별종교단체가 해당 종교의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에 소속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속증명서'를 상급 소속단체로부터 발급받아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지만 공제 가능.

참고로 개별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만으로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불가함.

※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 공제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1%를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니 유의하길 바랍.

6) 월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개별 서류 제출

-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망.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에 유의해야하고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공제 가능
-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m<sup>2</sup>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 임차
  - ⇒ 임대차월세계약서 제출 요망
  - ⇒ 2019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이 아니더라도 기준시가 4억원(2023년까지는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월세지출액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 되었으므로 관련 임차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제출하길 바라고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라면 제출할 필요없음.
- ③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만 공제 가능함.
- ④ 주민등록지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할 것
- ⑤ 월세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 제출
- ⑥ 주거용 오피스텔의 월세지급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고 2017년부터는 고시원에 대한 월세지급액도 공제 가능

- ⑦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이전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불가함에 유의해야 함. 참고로 2017년 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하고 지출한 월세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음.
- ⑧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21.1.1.이후 지급하는 월세액 분부터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8)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요약

아래의 내용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사후검증 결과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부분들이라 판단되는 부분이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①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포함
-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 ③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 ④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 ⑤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 ⑥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교육비와 의료비 항목 확인할 것
- ⑦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 ⑧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 가능
- 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가능

#### (9)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아래의 내용은 국세청의 사후검증 시 주요 과다공제로 점검되는 유형이니 특히 주의할 것

- 1) 부양가족 이중공제 여부
  - ①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
  - ②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
- 2) 소득요건 미충족한 부양가족의 공제 여부
  - ①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금액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② 주택임대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금액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③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금액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3) 주택 관련 공제 여부
  - ① 연도말 세대주가 아님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 ②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4)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 ①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 ①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는 경우

5)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

- ① 의료비 지출액보다 실손의료보험금이 큰 경우 당해 연도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대상연도를 확인하여 2024년 5월에 소득자 스스로 근로소득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 ②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의료비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6) 기부금 세액공제 여부

- ①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의 기부금 지출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 ② 허위 기부금 영수증(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 영수증 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못한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기부금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7) 월세 세액공제 여부

- ① 연도말 세대주가 아님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 ② 국민주택 규모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